

보도시점 : 2026. 4. 28.(화) 11:00 이후(4. 29.(수) 조간) / 배포 : 2026. 4. 28.(화)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펼쳐질 무한질주 ... 국가대표 자율주행 기업 선정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현대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렉스 3개사 자율주행 국가대표로 선정
- 광주시 전역(500km²)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규제 없는 대규모 실증환경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200대 규모의 전용차량을 활용하여 E2E AI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참여기업 3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였으며, 공모 접수(2.6~3.13) 및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렉스가 선정되었다.

* (서면) E2E 기술개발 계획서 평가 / (현장) K-CITY 내 실차 주행능력(골목길 등) 평가

○ 현대자동차는 레벨2⁺(주행보조, B2C)와 레벨4(자율주행, B2B)를 동시 개발하고 있으며, 42dot의 Atria AI를 빠르게 고도화해 국내외 판매차량에 탑재를 목표로 하고있다.

○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Roii)의 제작 역량을 갖추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운수사업자와 협력하여 대중교통의 자율주행 전환에 앞장설 계획이다.

* 전국 14개 지방정부에서 자율주행 셔틀, DRT, 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행 중

○ 라이드플렉스는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유상 화물운송(서울 동남권 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도 최초로 허가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 현재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실증 중이며, 상반기 중 무인 전환 예정

-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이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내 최초로 도시 단위 시범운행지구(500.97km²)를 지정하였으며,
-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발표한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조성하고, 7대 지원패키지(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를 연계 지원하여 메가특구가 지향하는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 4월 29일에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율주행 기업, 자동차제조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 광주시가 한자리에 모여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디어 자율주행 실증도시의 첫 여정을 함께할 국가대표 자율주행 기업이 모두 모였다”면서,
- “국토부장관으로서 우리부의 명운을 걸고 실증도시가 대한민국 핵심 미래 전략산업을 이끄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월시 (044-201-3847)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4146)
			사무관	조상우 (044-201-3852)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태석 (044-201-5557)
		담당자	사무관	이진우 (044-201-3820)
			사무관	범상섭 (044-201-3818)